

# 광주은행 서울 입지 넓힌다

## 수신 기반 강화... 하반기 7번째 지점 신설키로

### 지방은행중 최다...총 수신액의 25%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서울 지점을 갖춘 광주은행이 7번째 서울지점 개설계획을 세우고 영업력 확대에 나선 계획이다.

4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하반기에 서울의 잠실이나 송파쪽에 7번째 서울지점을 추가 신설하는 계획을 세워 서울지역 수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구·전북은행이 올 하반기 서울지점 추가 신설 계획을 세우는 등 지방은행의 서울진출 확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은행의 7번째 점포 신설은 기존의 서울지역 영업력 주도

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송기진 은행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 1975년 11월 서울지점(현 서울영업부)을 필두로 현재 강남과 여의도, 양재, 구로와 마포까지 총 6개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은행,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3곳의 서울지점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광주은행의 서울지점 수는 두배에 이르고 있다. 지방 5대 은행중 규모가 작은 전북은행도 4곳의 서울지점을 개설하고 서울지역 수신기반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광주은행 6번째 마포금융센터지점 개점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6개의 서울지역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지난해 7월 구로디지털단지내 지방은행 최초로 서울 5호점인 구로금융센터지점을 개설했고, 올 3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6호인 마포금융센터지점을 개점하고 서울 중서부 지역 영업공략에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의 서울지점 수 늘리기는 고령화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역 기반 성장동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서울지역이 비교적 적은 인프라로 수신 기반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광주은행 6곳의 서울지점 총수신액은 3조 1470억원으로 광주은행 총 수신의 25.45%, 총대출 1조 7450억원으로 광주은행 총대출의 15.9%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 6곳의 서울지점은 수출입 등 외환부문에서 광주은행 외환실적의 총85%를 차지함으로써 외환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광주지역에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력 확대가 담보상태에 있어 시장성이 큰 서울지역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호남지역 출향 서울소재 기업들과 대기업 시장 고객을 대상으로 서울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은행들 부실채권 3조2천억 줄어

PF 적극 정리...2분기 23조원으로 0.27%p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올해 2분기 말 23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3조2000억원 줄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중 은행권의 신규 부실채권은 6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대손상각, 매각, 담보처분 등으로 정리한 부실채권이 1분기 3조9000억원에서 2분기 5조6000억원으로 늘어 부실채권 잔액은 감소했다.

부실채권 잔액을 전체 여신으로 나타낸 부실채권비율은 2.00%에서 1.73%로 0.27%포인트 하락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1.28%), 우리(2.42%), 하나(1.22%), 외환(1.36%), 국민(1.84%) 등은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했다. 다만 SC제일(0.88%) 등 외국계은행은 부실채권비율이 다소 상승했다. 부실채권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부동산 PF 부실채권비율이 18.19%에서 12.80%로 큰 폭 하락했으며, 전체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도 2.71%에서 2.33%로 낮아졌다.

### 7월 차 생산 39만1607대

올해 7월 자동차 국내 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에 따르면 7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꾸준한 호조를 바탕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39만1607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고유가에 따른 경차, 하이브리드차 등 고연비 모델 판매 증가와 신차 효과, 일부 판매망 확충에 힘입어 6.0% 증가한 12만7816대로 집계됐다.

수출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에 따른 고연비 소형차 선호도 증가, 국산차의 품질 경쟁력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으로 4.9% 늘어난 26만6956대를 기록했다.

# 폭우에 폭염에... 과일·채소값 '굉충'

### 수박 18% 올라 2만원...배추 12% 상승 9500원

젓은 비와 기온 상승이 반복되면서 과일과 채소값이 상당한 폭으로 올랐다.

4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클럽 서울 양재점을 기준으로 지난주 3포기에 8500원이던 배추는 가격이 11.7%가량 올라 9500원에 사고 팔렸다. 무는 1개에 2980원에서 17.4% 상승해 3500원, 감자는 20.2% 올라 2380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대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단

에 1700원이었고 양파는 3kg에 400원 떨어진 3500원이 됐다.

과일에서는 토마토가 4kg에 1만 9500원으로 34.4%나 올랐고 수박(8kg)과 포도(캠벨·1.5kg)는 각각 17.8%와 12.2% 상승해 1만9900원, 1만29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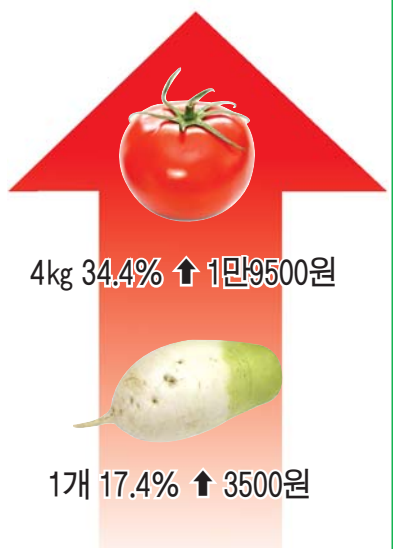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삼겹살과 쇠고기 가격도 상승했다. 삼겹살은 100g에 2560원에서 2980원으로 올랐고 쇠고기 등심

(+1등급)은 7.2% 상승한 7480원, 양지(+1등급)는 5.0% 높아진 4180원이었다.

생닭(851g)은 6980원에서 6298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농산물은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올라가서 상품성이 떨어진 탓에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으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공급은 안정적이지만 휴가철에 소비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배추와 대파, 무, 양파,



복숭아, 삼겹살, 목살 등을 정산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낭에 패션을 입혔어요"

4일 광주 신세계 패션스트리트 JEEP매장에서 올 가을을 겨냥한 신상품 배낭을 선보였다. 여름 휴가 용도로도 가능한 이 배낭은 최근 트렌드인 빅 사이즈에 다양한 컬러를 갖춰 여행용으로 쓰기에 알맞다. <광주 신세계 제공>

# 끝 모를 금값 상승

### 1돈 내다 파는 가격 첫 20만원 돌파

국내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반복해 경신하면서 소비자 1돈(3.75g)을 내다 파는 가격이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섰다.

4일 금지금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 소매가는 소비자가 살 때를 기준으로 3.75g에 22만3천3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가진 금(순도 99.9% 골드바 기준)을 팔 때의 가격

도 사상 처음으로 20만원을 넘어 20만2500원으로 책정됐다.

최은규 한국금거래소 부사장은 "미국의 이종철채나 유로지역 국가의 경제 위기 등이 안전 자산으로의 회귀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며, 달러화의 지위 약화에 따른 불안으로 한국 은행이 금 보유량을 25% 늘리는 등 국가의 금 보유 정책강화 등이 금 투자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보해 '순희' 中과 50만달러 수출계약

보해 파스타의 마걸리 '순희'가 중국시장을 노린다.

보해양조는 지난 7월 중국 상해순보해국제무역유한공사와 마걸리 '순희'의 5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고, 5일 1차분 3200상자(6만4000병)를 부산항에서 선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 내 마걸리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교포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일부 중국인들이 마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마걸리 한류'도 예상돼 보해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해는 지난 5월 주류수입업체(주)우리술과 '순희'의 100만달러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 8월 현재 8000상자(16만병)를 선적한 데 이어 이번 중국수출을 성사시켜 올해 '순희' 마걸리 400만병, 금액으로 300만불이

상의 수출 실적을 거둘 계획이다.

보해 관계자는 "파스타의 공병으로 빛은 '순희'는 신선함과 영양, 맛이 일품하게 유지돼 해외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다"며 "수출국 확대와 더불어 마걸리의 세계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로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순희'는 매우 송지효를 모델로 선정하고, TV CF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마걸리 열풍을 지속 이어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복장이 전문점

#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우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일곡지구

연초계조창

롯데빌딩

코카콜라

해태제과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 SINCE 1988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욕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